





# 위대한領導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6돐에 즈음하여

광명성 절경축 예술공연

## 《장군님 험원 꽃피는 내 나라》 진행

광명성 절경축 예술공연 『장군님 험원 꽃피는 내 나라』가 16일 동평양 대극장에서 진행되었다.

공연장소는 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주체조선의 준엄과 위상을 담당에 떨치며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하여 계속혁신, 계속진전해가는 만리마대진군길에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명절을 맞이하는 인민의 코나큰 환희와 격정으로 설레이고 있었다.

당과 정부의 책임임원들과 우당위원장, 당중앙위원회, 무력기관, 내각, 균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인민군장병들, 자강도인의 너성봉로자들, 정당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 로력혁신자,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광명성절을 맞으며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 있는 제일본조선인축하단을 맞이하는 인민의 코나큰 환희와 격정으로 설레이고 있었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부, 무관부부, 외국손님들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혁명의 성간 백두산에서 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주체혁명의 정구한 도정을 자랑하는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높은 사랑과 존경을 향하여 향수를 풍물하고 있는 제일본조선인축하단을 맞이하는 인민의 코나큰 환희와 격정으로 설레이고 있었다.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은 조국과 혁명에 대한 높은 사랑감을 안으시고 강렬의 의지를 불철주야의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대양조선의 무궁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만년도를 쌓아올려신 세례의 애국자, 인민의 어버이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한평생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이 땅에 인민대중 제일주의의 성스러운 혁력을 축복해주시는 혁명의 정을 구가한 너성동창과 너성방장 『장군님 생각』, 너성방장 『인민사랑의 노래』는 관객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혁명의 정을 높이 추켜드

고하고 『황진』, 남성동창과 너성방장 『말하라 선군길이』, 무용 『절명의 절쭉』, 『붉은 기 날피며 더 높이 더 뻗히』, 너성 6종 장과 함장 『아버지라 부릅니다』 등의 대제로를 풍물들이 올렸다.

출연자들은 조국과 혁명에 대한 높은 사랑감을 안으시고 강렬의 의지를 불철주야의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대양조선의 무궁번영과 후손만

대의 행복을 위한 만년도를 쌓아올려신 세례의 애국자, 인민의 어버이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한평생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이 땅에 인민대중 제일주의의 성스러운 혁력을 축복해주시는 혁명의 정을 구가한 너성동창과 너성방장 『장군님 생각』, 너성방장 『인민사랑의 노래』는 관객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혁명의 정을 높이 추켜드

고하고 『황진』, 남성동창과 너성방장 『말하라 선군길이』, 무용 『절명의 절쭉』, 『붉은 기 날피며 더 높이 더 뻗히』, 너성 6종 장과 함장 『아버지라 부릅니다』 등의 대제로를 풍물들이 올렸다.

출연자들은 조국과 혁명에 대한 높은 사랑감을 안으시고 강렬의 의지를

불철주야의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대양조선의 무궁번영과 후손만

대의 행복을 위한 만년도를 쌓아올려신 세례의 애국자, 인민의 어버이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한평생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이 땅에 인민대중 제일주의의 성스러운 혁력을 축복해주시는 혁명의 정을 구가한 너성동창과 너성방장 『장군님 생각』, 너성방장 『인민사랑의 노래』는 관객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혁명의 정을 높이 추켜드

고하고 『황진』, 남성동창과 너성방장 『말하라 선군길이』, 무용 『절명의 절쭉』, 『붉은 기 날피며 더 높이 더 뻗히』, 너성 6종 장과 함장 『아버지라 부릅니다』 등의 대제로를 풍물들이 올렸다.

출연자들은 조국과 혁명에 대한 높은 사랑감을 안으시고 강렬의 의지를

불철주야의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대양조선의 무궁번영과 후손만

대의 행복을 위한 만년도를 쌓아올려신 세례의 애국자, 인민의 어버이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한평생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이 땅에 인민대중 제일주의의 성스러운 혁력을 축복해주시는 혁명의 정을 구가한 너성동창과 너성방장 『장군님 생각』, 너성방장 『인민사랑의 노래』는 관객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혁명의 정을 높이 추켜드

고하고 『황진』, 남성동창과 너성방장 『말하라 선군길이』, 무용 『절명의 절쭉』, 『붉은 기 날피며 더 높이 더 뻗히』, 너성 6종 장과 함장 『아버지라 부릅니다』 등의 대제로를 풍물들이 올렸다.

출연자들은 조국과 혁명에 대한 높은 사랑감을 안으시고 강렬의 의지를

불철주야의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대양조선의 무궁번영과 후손만

대의 행복을 위한 만년도를 쌓아올려신 세례의 애국자, 인민의 어버이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한평생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이 땅에 인민대중 제일주의의 성스러운 혁력을 축복해주시는 혁명의 정을 구가한 너성동창과 너성방장 『장군님 생각』, 너성방장 『인민사랑의 노래』는 관객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혁명의 정을 높이 추켜드

고하고 『황진』, 남성동창과 너성방장 『말하라 선군길이』, 무용 『절명의 절쭉』, 『붉은 기 날피며 더 높이 더 뻗히』, 너성 6종 장과 함장 『아버지라 부릅니다』 등의 대제로를 풍물들이 올렸다.

출연자들은 조국과 혁명에 대한 높은 사랑감을 안으시고 강렬의 의지를

불철주야의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대양조선의 무궁번영과 후손만

대의 행복을 위한 만년도를 쌓아올려신 세례의 애국자, 인민의 어버이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한평생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이 땅에 인민대중 제일주의의 성스러운 혁력을 축복해주시는 혁명의 정을 구가한 너성동창과 너성방장 『장군님 생각』, 너성방장 『인민사랑의 노래』는 관객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혁명의 정을 높이 추켜드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탄생 76돐에 축하하는 제16회 전국민족대회가 16일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장은 조국의 통성번영과 혁명의 미래를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며 이 땅에 후대 사람의 역사로 펼쳐 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함께 있다.

각 도소년단 대표들과 평양시내 학생소년단, 조선소년단에 입단하는 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희동지, 내각부총리 전광호동지,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승두동지, 판계부장, 청년통령 일군들, 공로자들이 대회에 초대되었다.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연으로 대회는 시작되었다.

김 일성 - 김정일 주석의 청년통령 중앙위원회 위원장 최희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온 나라 천만군민이 혁명의 신심과 학관에 넘쳐 혁명의 새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총동력을 힘차게 밀어나가고 있다.

제16회 전국민족대회는 2월명절을 맞아서는 해마다

## 지덕체를 겸비한 강성조선의 주인공으로 억세게 준비하자

### 조선소년단 전국련합 단체 대회 진행

있는 적통적인 시기에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탄생 76돐에 축하하는 제16회 전국민족대회가 16일 대회에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것은 주체혁명 위업의 찬란한 미래가 절체전조선의 대통령이었으며 민족의 대정사였다고 하면서 그는

충고한 후대원수를 전으로 지나는 강하고 높은 글자로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퍼질수 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위대한 대원수님의 시랑의 력사로는 이 땅에 변함없이 흐르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학생소년들에게 전반적

12년제의 무교육의 넓은 대문을 헤치시며 주체혁명위업 실현을 위하여 자신을 초불처럼 꽂아 놓았던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적이며 전인적인

한평생에 대한 열정으로 그는 축복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해마다 소년단원들이 지덕체의 나래를

활짝 펼쳐 주면서 그는 대회에 축복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해마다 소년단원들이 지덕체의 나래를 활짝 펼쳐 주면서 그는 대회에 축복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해마다 소년단원들이 지덕체의 나래를 활짝 펼쳐 주면서 그는 대회에 축복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해마다 소년단원들이 지덕체의 나래를 활짝 펼쳐 주면서 그는 대회에 축복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해마다 소년단원들이 지덕체의 나래를 활짝 펼쳐 주면서 그는 대회에 축복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해마다 소년단원들이 지덕체의 나래를 활짝 펼쳐 주면서 그는 대회에 축복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해마다 소년단원들이 지덕체의 나래를 활짝 펼쳐 주면서 그는 대회에 축복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해마다 소년단원들이 지덕체의 나래를 활짝 펼쳐 주면서 그는 대회에 축복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해마다 소년단원들이 지덕체의 나래를 활짝 펼쳐 주면서 그는 대회에 축복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해마다 소년단원들이 지덕체의 나래를 활짝 펼쳐 주면서 그는 대회에 축복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해마다 소년단원들이 지덕체의 나래를 활짝 펼쳐 주면서 그는 대회에 축복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해마다 소년단원들이 지덕체의 나래를 활짝 펼쳐 주면서 그는 대회에 축복하였다.

이 그룹에게 불온한 태도를 떠여주고 소년단원들을 말아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칭송하는 학생들이 일관되게 혁명의 정신을 위하여 일관되게 헌신하였다.

이어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에서 열어 주시며 1종 학교 교장 방송선동지, 1종 학교 교장 방송선동지, 기관지 제 7차 대회 결정 판찰을 맡았습니다.

제16회 전국민족대회는 조선소년단원들이 학업 성적의 높이이어야 하며 전인적인 혁명의 정신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제16회 전국민족대회는 조선소년단원들이 학업 성적의 높이이어야 하며 전인적인 혁명의 정신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제16회 전국민족대회는 조선소년단원들이 학업 성적의 높이이어야 하며 전인적인 혁명의 정신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제16회 전국민족대회는 조선소년단원들이 학업 성적의 높이이어야 하며 전인적인 혁명의 정신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제16회 전국민족대회는 조선소년단원들이 학업 성적의 높이이어야 하며 전인적인 혁명의 정신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제16회 전국민족대회는 조선소년단원들이 학업 성적의 높이이어야 하며 전인적인 혁명의 정신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제16회 전국민족대회는 조선소년단원들이 학업 성적의 높이이어야 하며 전인적인 혁명의 정신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제16회 전국민족대회는 조선소년단원들이 학업 성적의 높이이어야 하며 전인적인 혁명의 정신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제16회 전국민족대회는 조선소년단원들이 학업 성적의 높이이어야 하며 전인적인 혁명의 정신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제16회 전국민족대회는 조선소년단원들이 학업 성적의 높이이어야 하며 전인적인 혁명의 정신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제16회 전국민족대회는 조선소년단원들이 학업 성적의 높이이어야 하며 전인적인 혁명의 정신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제16회 전국민족대회는 조선소년단원들이 학업 성적의 높이이어야 하며 전인적인 혁명의 정신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제16회 전국민족대회는 조선소년단원들이 학업 성적의 높이이어야 하며 전인적인 혁명의 정신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제16회 전국민족대회는 조선소년단원들이 학업 성적의 높이이어야 하며 전인적인 혁명의 정신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제16회 전국민족대회는 조선소년단원들이 학업 성적의 높이이어야 하며 전인적인 혁명의 정신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제16회 전국민족대회는 조선소년단원들이 학업 성적의 높이이어야 하며 전인적인 혁명

# 사회주의 강국의 승리를 부르는 장쾌한 봄되성

## 광명성 절을 경축하여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축포 발사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평명성절을 경축하여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축포발사가 있었다.

16일 저녁 주체사상께서 솟아있는 대동강변을 중심으로 김일성광장과 만수대언덕, 옥류교 등 수도의 곳곳은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해의 평명성절을 맞이한 크나큰 감각과 기쁨을 안고 축포가 떠져오를 순간을 기다리는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근중들의 가슴가슴은 주체의 조국을 온 세상에 빛내이실

의지를 안으시고 모든것을 다 바치시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에게 대한 다할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으로 끌어넘치고 있다.

19시 《꽃다발을 드리옵니다》의 노래선율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경축의 축포가 더져왔다.

최세의 전출위인을 높이 모신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 혁명적명절을 세세년년 빛내여 가려는 천만군민의 충정의 마음이 2월의 하늘가를 불게 물들이며 아름다움의 일만경을 펼치었다.

한평생 가장 숭고한 애국심, 강국님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후손대의 행복을 위한 만년초석을 마련하시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천히 펼쳐주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칭송이다.

절세위인에 대한 절질한 그려움이 넘쳐흐르는 속에 경축의 축포들이 떤이어 솟아쳐온과 영생축원

의 불꽃바다를 펼치고 장엄한 축포성은 하늘땅을 전갈하였다.

황홀한 불의 세계를 격정속에 바라보며 군중들은 우리 인민의 세기를 두고 널원하던 강국의 희생을 실현하기 위하여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전인민임의 험난한 길을 헤쳐오신 어버이 장군님의 거룩한 생애를 가슴뜨겁게 들이켜보았다.

한평생 가장 숭고한 애국심, 강국님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후손대의 행복을 위한 만년초석을 마련하시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천히 펼쳐주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칭송이다.

김일성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명도가 있어 주체의 내 조국은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나바. 인민의 모든 꿈과 희망이 현실로 끊어나는 사회주의의 확원으로 밀을 뿐리게 되었다.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드높이 강국건설의 물결로를 열어나가고 있는 수도의 근로자들과 어머니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밀려 행복만을 누려가는 새 세대들의 기쁨넘친 모습들...

장쾌한 축포성과 함께 오색찬연한 불꽃들로 천재만상을 이룬 불야경을 경란속에 바라보는 균중들의 얼굴마다에는 또 한분의

희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병도자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전투에 높이 모시여 주체조선의 미래는 보다 휘황찬란세상이 우러러보는 사회주의 강국, 인민의 봉원을 일떠세우기 위한 천민총동력전에 맹쳐나선 천만군민의 혁명열, 무쟁열, 애국열을 배배해주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천재만세명원히 높이 밟아들여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병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몸쳐 주체조선의 친환한 미래를 앞당겨고자 기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고자 것이다.

2월의 하늘가에 퍼져오른 경축의 불보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온 세상이 우러러보는 사회주의 강국, 인민의 봉원을 일떠세우기 위한 천민총동력전에 맹쳐나선 천만군민의 혁명열, 무쟁열, 애국열을 배배해주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천재만세명원히 높이 밟아들여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병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몸쳐 주체조선의 친환한 미래를 앞당겨고자 기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고자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 경축분위기를 고조시킨 체육열기

### 제 23차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를 보고

특히 날자통구절승경기에 출전한 철체룡마성팀과 철도성팀의 선수들은 빠른 속도와 기력과 재치있는 편학, 정착한 민체냉기 등으로 뛰어난 점수를 올려 관람자들의 감탄을 자아내었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이 체육을 즐기고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물들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13일까지 진행된 제 23차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에서 위원회, 성, 중앙기관의 일군들은 4개 조로 나뉘어 승자전의 방법으로 승부를 겨루었다.

평양체육관과 태권도전당, 청춘거리 통구경기장, 체육위원회, 은하지도국, 교육위원회, 은하지도국, 과학기술전당에서 경기대회가 진행되었다.

체육기술적, 체육능력을 날뛰어 발휘하면서 훌륭한 경기모습을 보여 주었다.

체육경기장에서는 우승을 차지한 팀은 체육경기대회를

자들의 모습도 불만하고 청단의 단결력을 날김없이 과시하면서 힘을 합쳐 비중을 당기는 선수들의 경기모습도 사람들을 흥분시켰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인민봉사총국립사업부, 후원은행, 보향지도국, 조선현명박물관원이 우승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사격경기, 육상경기, 둠안에서 공이 고달리기 경기에서도 인상깊은 장면들이 펼쳐졌다.

각 단체 성원들도 활발적인 유행으로 자기 팀 선수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 주고 경기장들의 분위기를 한껏 둔구어 주었다.

이번 체육경기대회 조별종합 순위에서 1위는 국가체육위원회, 인민봉사총국, 대성은행, 과학기술전당팀이 하였다.

태권도전당에서 진행된 태권도경기에서는 국가체육위원회, 인민봉사총국, 대성은행, 외국문화관련사원 선수들이 훌륭한 경기장을 펼쳐보여 관람자들도 모두 이거 편람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손에 기발을 쏘고 춤씨 있게 자기 팀 선수들이 흥겨운 힘을 쓰도록 고무하는 각 팀 지휘

## 연사군 음지구상공에 쌍무지개가 비겼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평절을 맞으며 제 23차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내자매구경기에 출전한 각 팀 선수들도 평시에 험비미에 배우고 보여주었다.

내자매구경기에서는 철도성, 철체룡마성팀과 철도성팀의 선수들이 기쁨을 주었고 남이 같은 편학기에서는 철도성팀과 철체룡마성팀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바둑이 편학기에서는 철도성팀과 철체룡마성팀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체육경기에서는 철체룡마성팀과 철도성팀이 우승을 차

# 위대한 강국으로 영광 떨치는 주체조선에 만발한 김정일화

우리는 지금 얼마전에 성대히 막을 올린 제 2 차 김정일화축 전장에 서 있다.

불멸의 꽃 김정일회명명 30돐을 맞은 뜻 깊은 시기에,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지위가 최상의 경지에 오른 적통적인 시기에 평양성장을 더욱 빛나게 장식하는 대양의 꽃비단을 바라볼수록 민족적 гор지와 자부심이 하늘에 닿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태양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야 합니다.』

글들이 불길처럼 흐르는 참관자들과 함께 그리움의 향기, 위인 칭송의 향기를 한껏 풍기는 김정일화들을 가슴에 차게 안아보는 우리의 마음은 대양의 꽃이 새겨온 그 깊이 뜻을 품은 역사의 나날들에 흘러오른다.

감격도 새로운 주제 77(1988년) 2월 21일, 이날 『로동신문』은 위대한 장군님의 존엄을 모신 불멸의 꽃 김정일화가 세상에 떠어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였다.

조국과 혁명, 시대와 인류앞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출출한 명도자의 꽃, 인민의 다할 없는 헌모와 뜨거운 신뢰의 뜻은 위인 칭송의 꽃에 대한 소식은 나라 인민을 적통시키었다.

그때부터 한 달 기간에만도

## 천만년 길이 빛나 불멸의 꽃이여

김정일화를 보기 위하여 종양식 물원으로 찾아온 참관자들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수도 평양뿐 아니라 김정숙군,

회령시, 파산군 등 전국 각지의

인민들도 앞을 다투어 찾이

왔다.

만월로 활짝 피어난 꽃송이, 타는 듯한 붉은색의 베 촉작인 꽃잎, 양세계 꽃을 달쳐온 굵은 줄기와 심장형의 꽃은 일상의 풍물이다.

내부도 황홀한 꽃을 보고 또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김정일화가 대양의 빛과 같아 놀라워 했다고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실장형의 꽃은 일에 쓰여 성실하게 자란 이 불멸의 꽃은 위대한 장군님을 더 한 우리 인민들과

진보적인 인류의

다함께 품어온

정성을 그대로 상징한다고

정정을 풀었다.

3년 후인 1991년 5월 제 스포츠로드 브리즈(당시)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가장 이름있고 아름다운 꽃들, 새로 유통해낸 친구한 꽃들로 대회원을 이룬 제 12차 국제화초전시회가 진행되었다.

이미 한 세대적인 꽃의 경쟁에 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고 특별상과 금메달을 수여받은 것은 우리 나라에서 출품한 김정일화였다.

특별히 구려전 김정일화전시

관을 찾았던 참관자들은 데일

평균 5만명 이상이 있고 불멸의 꽃에 대한 경란의 목소리 또한

그칠 수 없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김정일화

에는 세계적인 꽃의 경쟁에 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고 특

별상과 금메달을 수여받은 것은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

인류의 창작적 열정을 더더욱

분출시켰다.

30년전 꽃은 대양처럼 멀고

멀고, 꽃은 김정일회명명 20

년에 자주시대 인류의 만년제보

인 『김일성화전서』와

갖춘 김정일화온실은 인민의 마음과 마음이 끝없이 달려오는 곳으로 되었다.

한편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터质量和 맑고맑은 충정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며는 인민의 마음은 김일성화와 함께 김정일화를 자기 일의 마을, 가정에서도 복지 복지 편의 고장으로 되었다.

이렇게 세상에 나오자마자 대번에 우리 인민아들은 인류의 실장을 풀어온 김정일화는 남대와 남대를 이어 고결한 충정의 역사, 일화같은 일기로 힘을 더해왔다.

꽃길은 울여에 22번짜로 진행되고 있는 불멸의 꽃축전장에 노래 『김정일화』가 울린다.

뜰으면 들을수록 위대한 장군님을 무한히 흡모하고 따르는 만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품은 만한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과

서정에 담고 새기와 세기 이를 높이 울려메기는 역사의 메아리이다.

김정일화가 떠어난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 얼마나 악여 이 노래가 창작된 이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만민성승의 열기

이 전개되는 시, 노래, 무용, 미술작품, 우표, 소설, 영화 등이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김정일화협회, 후원회 등이 조직되고 김정일화온실들이 편이 개설되면서 전세계적 범위

의 꽃은 우리 인류와 세계 진보적인

인류의 창작적 열정을 더더욱

분출되었다.

우리나라를 통한 김정일화

는 세계를 향해 알뿌리를

내고 조국으로 돌아온

꽃길은 우리에게 품을 이

는 대안 꽃이다.

우리나라에서 출품한 김정일화

는 세계를 향해 알뿌리를

내고 조국으로 돌아온

꽃길은 우리에게 품을 이

는 대안 꽃이다.

우리나라를 통한 김정일화

는 세계를 향해 알뿌리를

내고 조국으로 돌아온

꽃길은 우리에게 품을 이

는 대안 꽃이다.

우리나라를 통한 김정일화

는 세계를 향해 알뿌리를

내고 조국으로 돌아온

꽃길은 우리에게 품을 이

는 대안 꽃이다.

우리나라를 통한 김정일화

는 세계를 향해 알뿌리를

내고 조국으로 돌아온

꽃길은 우리에게 품을 이

는 대안 꽃이다.

우리나라를 통한 김정일화

는 세계를 향해 알뿌리를

내고 조국으로 돌아온

꽃길은 우리에게 품을 이

는 대안 꽃이다.

우리나라를 통한 김정일화

는 세계를 향해 알뿌리를

내고 조국으로 돌아온

꽃길은 우리에게 품을 이

는 대안 꽃이다.

우리나라를 통한 김정일화

는 세계를 향해 알뿌리를

내고 조국으로 돌아온

꽃길은 우리에게 품을 이

는 대안 꽃이다.

우리나라를 통한 김정일화

는 세계를 향해 알뿌리를

내고 조국으로 돌아온

꽃길은 우리에게 품을 이

는 대안 꽃이다.

우리나라를 통한 김정일화

는 세계를 향해 알뿌리를

내고 조국으로 돌아온

꽃길은 우리에게 품을 이

는 대안 꽃이다.

우리나라를 통한 김정일화

는 세계를 향해 알뿌리를

내고 조국으로 돌아온

꽃길은 우리에게 품을 이

는 대안 꽃이다.

우리나라를 통한 김정일화

는 세계를 향해 알뿌리를

내고 조국으로 돌아온

꽃길은 우리에게 품을 이

는 대안 꽃이다.

우리나라를 통한 김정일화

는 세계를 향해 알뿌리를

내고 조국으로 돌아온

꽃길은 우리에게 품을 이

는 대안 꽃이다.

우리나라를 통한 김정일화

는 세계를 향해 알뿌리를

내고 조국으로 돌아온

꽃길은 우리에게 품을 이

는 대안 꽃이다.

우리나라를 통한 김정일화

는 세계를 향해 알뿌리를

내고 조국으로 돌아온

꽃길은 우리에게 품을 이

는 대안 꽃이다.

우리나라를 통한 김정일화

는 세계를 향해 알뿌리를

내고 조국으로 돌아온

꽃길은 우리에게 품을 이

는 대안 꽃이다.

우리나라를 통한 김정일화

는 세계를 향해 알뿌리를

내고 조국으로 돌아온

꽃길은 우리에게 품을 이

는 대안 꽃이다.

우리나라를 통한 김정일화

는 세계를 향해 알뿌리를

내고 조국으로 돌아온

꽃길은 우리에게 품을 이

는 대안 꽃이다.

우리나라를 통한 김정일화

는 세계를 향해 알뿌리를

내고 조국으로 돌아온

꽃길은 우리에게 품을 이

는 대안 꽃이다.

우리나라를 통한 김정일화

는 세계를 향해 알뿌리를

내고 조국으로 돌아온

꽃길은 우리에게 품을 이

는 대안 꽃이다.

우리나라를 통한 김정일화

#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절세의 위기에 대한 대처를 위한 경보와 그의 용의 정으로 가슴이 젖어드는 2월의 날마다 흐름을 봄과 남, 해외의 온 겨레를 민족주주의 기치, 조국통일의 가치에 대한 존중과 함께 묵어 세우신 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역사적 불멸의 신신이었고 의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일관하고 멈음을 찾지 않는 힘을 달아 주제 87(1988년 4월 18일) 역사적인 조국통일유예를 청탁해 나가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희망과 함께 헌신적인 정치적 성과를 보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충실히 마음을 얹고 듣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

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헌신하

나라에 조국통일에 헌신하신

불멸의 업적을 이루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고 고마워하는 사상과 행동으로

조국통일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

그이의 한생은 어버이수령님의 조국

통일사상과 표성을 굳건히 고수하고

드림없이 계승해나가시며 비단한 예지

와 정직적인 사상과 활동으로 조국

통일위업실현에 학하고 대내로 마련

하신 끊임없는 공적으로 떠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헌정명도의 해

시기, 때 단계마다 계시하신 과학적

이며 현실적인 자주통일로선과 방위

를 확장하는데 대한 청탁에 조국

통일운동에서 자기의 주체적성격을

전히 고수하며 승리적으로 전진하여

세계인민과 함께 조국통일을 이루

하시고 있다.

북조선이 미국대통령의 「년도교서」를

제시하면서 대체로 친화적

이며 협력적인 자주통일로선과 방위

를 확장하는데 대한 청탁에 조국

통일운동에서 자기의 주체적성격을

전히 고수하며 승리적으로 전진하여

세계인민과 함께 조국통일을 이루

하시고 있다.

북조선이 미국대통령의 「년도교서」를

제시하면서 대체로 친화적

이며 협력적인 자주통일로선과 방위

를 확장하는데 대한 청탁에 조국

통일운동에서 자기의 주체적성격을

전히 고수하며 승리적으로 전진하여

세계인민과 함께 조국통일을 이루

하시고 있다.

북조선이 미국대통령의 「년도교서」를

제시하면서 대체로 친화적

이며 협력적인 자주통일로선과 방위

를 확장하는데 대한 청탁에 조국

통일운동에서 자기의 주체적성격을

전히 고수하며 승리적으로 전진하여

세계인민과 함께 조국통일을 이루

하시고 있다.

북조선이 미국대통령의 「년도교서」를

제시하면서 대체로 친화적

이며 협력적인 자주통일로선과 방위

를 확장하는데 대한 청탁에 조국

통일운동에서 자기의 주체적성격을

전히 고수하며 승리적으로 전진하여

세계인민과 함께 조국통일을 이루

하시고 있다.

북조선이 미국대통령의 「년도교서」를

제시하면서 대체로 친화적

이며 협력적인 자주통일로선과 방위

를 확장하는데 대한 청탁에 조국

통일운동에서 자기의 주체적성격을

전히 고수하며 승리적으로 전진하여

세계인민과 함께 조국통일을 이루

하시고 있다.

북조선이 미국대통령의 「년도교서」를

제시하면서 대체로 친화적

이며 협력적인 자주통일로선과 방위

를 확장하는데 대한 청탁에 조국

통일운동에서 자기의 주체적성격을

전히 고수하며 승리적으로 전진하여

세계인민과 함께 조국통일을 이루

하시고 있다.

북조선이 미국대통령의 「년도교서」를

제시하면서 대체로 친화적

이며 협력적인 자주통일로선과 방위

를 확장하는데 대한 청탁에 조국

통일운동에서 자기의 주체적성격을

전히 고수하며 승리적으로 전진하여

세계인민과 함께 조국통일을 이루

하시고 있다.

북조선이 미국대통령의 「년도교서」를

제시하면서 대체로 친화적

이며 협력적인 자주통일로선과 방위

를 확장하는데 대한 청탁에 조국

통일운동에서 자기의 주체적성격을

전히 고수하며 승리적으로 전진하여

세계인민과 함께 조국통일을 이루

하시고 있다.

북조선이 미국대통령의 「년도교서」를

제시하면서 대체로 친화적

이며 협력적인 자주통일로선과 방위

를 확장하는데 대한 청탁에 조국

통일운동에서 자기의 주체적성격을

전히 고수하며 승리적으로 전진하여

세계인민과 함께 조국통일을 이루

하시고 있다.

북조선이 미국대통령의 「년도교서」를

제시하면서 대체로 친화적

이며 협력적인 자주통일로선과 방위

를 확장하는데 대한 청탁에 조국

통일운동에서 자기의 주체적성격을

전히 고수하며 승리적으로 전진하여

세계인민과 함께 조국통일을 이루

하시고 있다.

북조선이 미국대통령의 「년도교서」를

제시하면서 대체로 친화적

이며 협력적인 자주통일로선과 방위

를 확장하는데 대한 청탁에 조국

통일운동에서 자기의 주체적성격을

전히 고수하며 승리적으로 전진하여

세계인민과 함께 조국통일을 이루

하시고 있다.

북조선이 미국대통령의 「년도교서」를

제시하면서 대체로 친화적

이며 협력적인 자주통일로선과 방위

를 확장하는데 대한 청탁에 조국

통일운동에서 자기의 주체적성격을

전히 고수하며 승리적으로 전진하여

세계인민과 함께 조국통일을 이루

하시고 있다.

북조선이 미국대통령의 「년도교서」를

제시하면서 대체로 친화적

이며 협력적인 자주통일로선과 방위

를 확장하는데 대한 청탁에 조국

통일운동에서 자기의 주체적성격을

전히 고수하며 승리적으로 전진하여

세계인민과 함께 조국통일을 이루

하시고 있다.

북조선이 미국대통령의 「년도교서」를

제시하면서 대체로 친화적

이며 협력적인 자주통일로선과 방위

를 확장하는데 대한 청탁에 조국

통일운동에서 자기의 주체적성격을

전히 고수하며 승리적으로 전진하여

세계인민과 함께 조국통일을 이루

하시고 있다.

북조선이 미국대통령의 「년도교서」를

제시하면서 대체로 친화적

이며 협력적인 자주통일로선과 방위

를 확장하는데 대한 청탁에 조국

통일운동에서 자기의 주체적성격을

전히 고수하며 승리적으로 전진하여

세계인민과 함께 조국통일을 이루

하시고 있다.

북조선이 미국대통령의 「년도교서」를

제시하면서 대체로 친화적

이며 협력적인 자주통일로선과 방위

를 확장하는데 대한 청탁에 조국

통일운동에서 자기의 주체적성격을

전히 고수하며 승리적으로 전진하여

세계인민과 함께 조국통일을 이루

하시고 있다.

북조선이 미국대통령의 「년도교서」를

제시하면서 대체로 친화적

이며 협력적인 자주통일로선과 방위

를 확장하는데 대한 청탁에 조국

통일운동에서 자기의 주체적성격을

전히 고수하며 승리적으로 전진하여

세계인민과 함께 조국통일을 이루